세미나자료 2021-08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6주년 기념
2021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방향: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

2021. 11. 25.(목) 13:00~16:00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6주년 기념
2021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 주제 :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방향: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
- 일시 : 2021. 11. 25(목), 13:00 ~ 16:00
- 장소 :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 일정

시간	내용
13:00~13:30	등 록
13:30~13:50	개 회 | 사회 : **김은설** 기획조정본부장
	환영사 | **박상희** 소장
	축 사 | **정해구**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병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희곤**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3:50~14:00	참석기관 소개
	창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발표(KICCE 수행연구 주요 결과)	
14:00~14:30	▸ **발표 1.** 육아정책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정책제안 :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김근진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 **발표 2.**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 분석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종합토론	
14:30~15:30	참석기관 정책 제안 발표 (*ㄱㄴㄷ 순) **고완석** 팀 장 (굿네이버스) **김승언** 센터장 (터치아이발달센터) **김지수** 부 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백소영** 총 무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장화정** 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조선경** 회 장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회) **최진숙** 회 장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15:30~16:00	자유토론 및 폐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2021년도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연구소 설립 16주년을 기념하며 열리는 오늘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지난 2018년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구소 핵심 연구 영역에 대한 선제적 정책 이슈 발굴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하여 육아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저희 연구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부모와 현장 관계자 분들의 정책 제안 결과'와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소속 전문가 분들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도 주실 예정입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리 연구소의 김근진 부연구위원과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님, 김승언 터치아이발달센터장님, 김지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장님, 백소영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총무님,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님,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회장님, 최진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의미있는 자리를 위해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용진 의원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 2년이 되어가는 코로나19 감염병과의 대치 속에서 우리는 교육과 보육의 위기, 아동학대 등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중요한 일을 해내는 데 많은 위협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각자의 입장에서 많이 고민해보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겪어온 혼란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의 육아정책을 설계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시대적 요구일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생과 관련된 과제도 꾸준히 고민해야 할 현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럼이 현재를 듣고 미래를 내다보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창립 16주년과 제2차'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상희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육아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의 자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육아 환경 속에서 육아 문제를 새롭게 생각하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포럼에서는 육아정책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의견과 제안이 발표되고, 육아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발표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육아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포럼에서는 육아정책 관계자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화정 본부장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김지수 부장님,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회의 조선경 회장님,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의 백소영 총무님,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의 최진숙 회장님, 터치아이발달센터의 김승언 센터장님, 그리고 굿네이버스 고완석 팀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좋은 정책 제안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난 해 초부터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지속되었던 코로나19 위기는 육아 현실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던져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가 전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까지 고려한 새로운 육아정책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의 육아정책 수립에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의 문제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육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출생 증가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생에도 적응하는 육아정책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동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한 보육과 교육 지원을 행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훌륭한 성인으로 길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또는 차기 정부에서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육아정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은 그 때 세워질 새 육아정책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에서는 육아정책과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과 제안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해구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있는 포럼을 준비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관계 기관 종사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 제안을 위해 자리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아동, 육아 관련 업무를 하는 교사와 종사자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Bottom-Up 방식의 정책 수립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문제를 수렴하고, 중재해 나가면서 보다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정책이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은 뜻깊게 여겨집니다.

울창하고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동식물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듯,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육아정책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육아정책의 전 분야에 대한 학계, 공공단체, 현장대표들을 포함해 보다 생생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정책제안대회 결과와 일반 국민들의 육아정책에 대한 바람, 육아정책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생태계 포럼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향후 대한민국 육아 정책을 수립하는 큰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래구 국회의원 김희곤입니다.

먼저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나라 미래인 영유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본 포럼을 통해 육아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국민친화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내년 대선에 맞춰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정책은 출산율에 직관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출산율을 감안하였을 때 올바른 육아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할 것 입니다.

본 포럼에서 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연구자들의 제안에 결합하여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육아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자그마한 의견이라도 좋으니 많이 공유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곤 국회의원
국민의힘

CONTENTS

발표(KICCE 수행연구 주요 결과)

- 육아정책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정책제안 ····· 1
  :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김근진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 17
  :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 분석
  /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종합토론

- 고완석 팀 장 (굿네이버스) ····· 39
- 김승언 센터장 (터치아이발달센터) ····· 55
- 김지수 부 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63
- 백소영 총 무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 75
- 장화정 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 79
- 조선경 회 장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회) ····· 87
- 최진숙 회 장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 99

육아정책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정책제안

: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김근진 부연구위원 ı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2021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발표문

육아정책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정책 제안

–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개요

개 요

- 본 발표문에서 육아정책의 범주는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범주로 구분함.
- 본 발표문의 2021년 설문조사는 부모조사(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 2,000명), 전문가 조사(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100명), 어린이집 조사(원장 및 교사 1,274명), 유치원 조사(원장 및 교사 198명)로 구성됨.

* 본 발표문의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김근진·유해미·조혜주)에 기반하고 있음.

Part 1 전체 육아정책 기준 성과 평가

부모 조사: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정책과제		선택 비율(%)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26.6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6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8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4.1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4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3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5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0.6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2.3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1	자녀돌봄 시간지원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6.8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1.3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7.3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1		(3) 배우자 출산휴가	5.2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8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7.5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5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3.1

- **부모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휴직제도(26.8%), 아동수당(2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Part 1 전체 육아정책 기준 성과 평가

부모 조사: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정책과제		선택 비율(%)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1.2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7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4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8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9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6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4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5.7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3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3.5	자녀돌봄 시간지원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2.6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2.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4.3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4.0		(3) 배우자 출산휴가	12.7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3.9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1.8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9.6

- **부모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4.3%)가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1 전체 육아정책 기준 성과 평가

부모 조사: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정책과제		선택 비율(%)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17.2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7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5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4.9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6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9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4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3.8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2.6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1.4	자녀돌봄 시간지원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5.9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1.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8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1		(3) 배우자 출산휴가	6.9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5.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7.5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0.9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4.3

- **부모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휴직제도(25.9%), 아동수당(1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Part 1 전체 육아정책 기준 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정책과제		선택 비율(%)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13.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2.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6.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7.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5.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3.0	자녀돌봄 시간지원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36.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2.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0.0		(3) 배우자 출산휴가	8.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4.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2.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3.0

-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휴직제도(25.9%), 아동수당(1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Part 1 전체 육아정책 기준 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정책과제		선택 비율(%)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2.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6.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9.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2.0	자녀돌봄 시간지원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2.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1.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9.0		(3) 배우자 출산휴가	7.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4.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0.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6.0

-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큰 성과가 미흡한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0.0%)가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1 전체 육아정책 기준 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정책과제		선택 비율(%)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6.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8.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1.0	자녀돌봄 시간지원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7.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0.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0.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0		(3) 배우자 출산휴가	5.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2.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4.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4.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3.0

-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휴직제도(27.0%)가 가장 높게 나타남.**

부모 조사: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0.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목표)	9.7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1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10.3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5.2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9.4
(7)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6.6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5.7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8.3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6.1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5.0

- 부모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18.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1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Part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성과 평가

부모 조사: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5.8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목표)	8.8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10.4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6.4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2.2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15.0
(7)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5.4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7.2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6.2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7.0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5.9

- 부모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15.9%), 보육서비스 질 제고(15.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12.2%)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부모 조사: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5.7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8.9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7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7.7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5.1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19.5
(7)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4.9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4.4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5.9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3.5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9.9

- 부모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19.5%),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15.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13.5%) 순으로 높게 나타남.

Part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6.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8.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8.0
(7)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7.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8.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5.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0.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0

-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20.0%),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16.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1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Part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4.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목표)	6.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5.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2.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9.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17.0
(7)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4.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5.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0.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5.0

-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큰 성과가 미흡한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25.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19.0%), 보육서비스 질 제고(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Part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4.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목표)	13.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2.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0.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6.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34.0
(7)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7.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3.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8.0

-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를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34.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16.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13.0%) 순으로 높게 나타남.

유치원 조사: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필요 사항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보조 인력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교사 연수 강화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놀이중심 누리과정 홍보 강화	누리과정포털 (i-누리) 활성화	기타	계
57.6	13.1	9.1	8.1	6.1	2.0	2.0	1.5	0.5	100.0

- 유치원 조사에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57.6%)이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성과 평가

어린이집 조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 사항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	교사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문서 양식의 통합 등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대체교사/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교사 보수교육 확대 등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및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확보	교사가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기타	계(수)
76.2	10.5	4.1	3.5	2.8	2.5	0.3	100.0

- 어린이집 조사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76.2%)이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성과 평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조사: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달성 정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유치원	31.3	22.7	21.2	9.6	5.6	9.6	54.0	15.2	100.0
어린이집	30.3	21.6	30.0	10.2	6.2	1.7	51.9	16.4	100.0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달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유치원(부정비율 54.0%, 긍정비율 15.2%)과 어린이집(부정비율 51.9%, 긍정비율 16.4%) 모두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남.

Part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성과 평가

부모 조사: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49.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6.4
(3) 배우자 출산휴가	13.1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3.7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7.8

- 부모조사에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휴직제도(49.1%)가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성과 평가

부모 조사: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9.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4.2
(3) 배우자 출산휴가	21.2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20.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15.8

- 부모조사에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4.2%)가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성과 평가

부모 조사: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49.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6.4
(3) 배우자 출산휴가	13.1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3.7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7.8

- 부모조사에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휴직제도(49.1%)가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63.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9.0
(3) 배우자 출산휴가	12.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2.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4.0

- 전문가 조사에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과를 보인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휴직제도(63.0%)가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3.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2.0
(3) 배우자 출산휴가	12.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23.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10.0

- 전문가 조사에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32.0%)가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성과 평가

전문가 조사: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정책과제	선택 비율(%)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58.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
(3) 배우자 출산휴가	9.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0.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3.0

- 전문가 조사에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를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육아휴직제도(58.0%)가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4 2021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 육아정책연구소는 정책수요자(영유아 및 초등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제안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개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함(제출기한: 2021년 8월 25일-9월 30일, 심사 결과 발표: 2021년 10월 18일).
- 총 57개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9개 제안서를 수상작으로 결정함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6).

Part 4 2021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2021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수상작

구분	사업명	제안 내용
최우수상	건강한 마음 행복한 육아(마음건강 프로젝트)	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상담 등 수준별 지원을 진행(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는 사업 제안
우수상	(유치원·어린이집) 취약계층 실종예방을 위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안전팔찌)' 지원 사업	장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해 경찰청의 안전 관리 앱과 연동하고 알람 기능을 탑재한 안전 팔찌 지원 사업 제안
	다(多) 행복 희망 정책 제안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유아반 담임교사 지원률의 동등화, 보육교직원 급수별 학력별 호봉제 도입, 보육교사 인턴 제도 교육과정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순서 변경 등 다양한 보육정책 개선 방안 제안
장려상	1교실 2담임, 업무분장에 따른 주별순환근무제도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1교실 2담임 주별순환근무제도 정책화 방안 제안
	소멸위험 지역 자연치유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아토피 등 환경질환 완화를 위한 자연환경, 환경질환 안심 급간식, 정서 치유형 프로그램 및 부모 참여형 치유 프로그램 제공 어린이집 운영사업 제안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수립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법률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복지부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구축하고, 지자체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제안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만족도 평가 도입	학교종이(온라인 가정통신문 앱)에 초등돌봄교실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평가 강화 방안 제안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양육수당 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노인복지관의 노인 도우미를 활용한 안전 지킴이가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 제안
	영유아 건강검진 책 선물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어린이에게 각 시기별 연령에 맞는 책을 선물하고,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 제안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 분석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ㅣ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 분석[1)]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ı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1. 대국민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중장기 유아교육의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가치 및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등의 우선순위(중요도) 파악하는 데 있음.

□ **조사 대상**

○ 일반국민 총 3,000여명 대상으로 전국 17개시도 인구수에 비례하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세대별, 성별로 표집함.

○ 15~59세 대국민 조사 대상은 전체 3,115명으로 미혼이 32.6%, 기혼이 67.4% 분포하였고, 영유아와 초등자녀가 있는 부모가 44.4%

- 특히, 본 대국민조사에는 특히, 미래세대 부모가 될 10대(15세-19세)를 포함하였으며, 10대부터 40대까지 미혼인 국민을 1,015명 포함함.
- 출생부터 초등 1학년까지 어린자녀를 둔 부모를 자녀연령대별로 할당하여 1,001명 포함.

〈표 1〉 응답자 특성: 전체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계	100.0	(3,115)
연령		
15-19세	6.4	(198)
20대	15.0	(466)
30대	30.7	(956)
40대	30.0	(935)
50대	18.0	(560)

1)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도 기본과제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에서 일부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임.

구분	비율	(수)
미혼/기혼		
미혼	32.6	(1,015)
기혼	67.4	(2,100)
결혼여부*자녀여부		
미혼	32.6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44.4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23.0	(717)

○ 0-6세 자녀(영유아 및 초등 1학년)를 둔 부모의 특성

- 남성 40.7%, 여성 59.3%
- 30대가 53.4%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40대 41.2%, 20대 4.0% 등
- 대졸 이상이 88.0%, 고졸이 7.6%,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재학중 4.4%
-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42.0%,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이 24.5%, 700만원 이상 18.3%, 300만원 미만이 15.3%
- 맞벌이는 47.6%, 외벌이는 51.8%
- 중소도시가 49.1%, 대도시 38.54%, 읍면지역 12.54%
-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 60.0%, 유치원 24.0%, 두 기관 모두 이용해본 비율은 4.7%이었으며, 11.12%는 기관 이용 경험이 없음.

〈표 2〉 응답자 특성: 영유아 부모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계	100.0	(1,001)			
지역			학력		
서울	15.8	(158)	고졸 이하	7.6	(76)
인천/경기	34.8	(348)	전문대/4년제재학	4.4	(44)
대전/충청	12.0	(120)	전문대/4년제 대졸이상	88.0	(881)
광주/전라	9.1	(91)	월평균 소득		
대구/경북	9.2	(92)	300만원 미만	15.3	(153)
부산/울산/경남	14.8	(148)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2.0	(420)
강원/제주	4.4	(44)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4.5	(245)
지역규모			700만원 이상	18.3	(183)
대도시	38.5	(385)	혼인상태		
중소도시	49.1	(491)	미혼	0.6	(6)
읍면지역	12.5	(125)	기혼-맞벌이	47.6	(476)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성별			기혼-외벌이	51.8	(519)
남자	40.7	(407)	이용 경험 기관		
여자	59.3	(594)	어린이집만 다님	60.0	(507)
연령			유치원만 다님	24.0	(203)
15-19세	0.1	(1)	둘 다 다님	4.7	(40)
20대	4.0	(40)	기관 미이용	11.2	(95)
30대	53.5	(536)	이용 기관 유형		
40대	41.2	(412)	국공립	31.6	(267)
50대	1.2	(12)	그 외 기관	57.2	(483)
			기관 미이용	11.2	(95)

□ **조사 내용**

○ 미래사회(향후 5~10년간) 영유아기에 필요한 역량,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비전, 우선적인 정책과제, 지원 요구 등을 포함함.

- 설문문항은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문무경 외, 2017)에서 사용한 문항의 일부를 동일하게 활용하였으며, 정책 변화로 세부항목의 내용은 변경함.

〈표 3〉 설문조사 내용

구분		일반 국민	
		전체	0-6세, 자녀부모
지난 4년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평가/만족도	제2차 유아교육 혁신방안 및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의 핵심과제 평가 (실행수준과 성과가 높은 정책)	●	
	최근 4년간(2018-2021)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도, 만족도		●
향후 5년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방향 및 과제	영유아기 함양해야할 역량	●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의 영향 및 미래 변화 전망	●	
	정책 지원이 중요한 영유아기 연령대	●	
	유아교육·보육 기관 선택 기준	(미혼만 응답)	●
	사회변화를 반영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과 목표	●	
	정부의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전반적 정책 관련 의견 (중요도, 우선순위)	●	
	세부과제별 중요도		●

□ **조사 방법**

○ 전문조사업체가 보유한 전국단위 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 실시함.

○ 조사기간: 2011. 10월

2. 주요 조사결과

가.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고려하여야 할 사회변화

□ 모든 연령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를 가장 많이 응답함(46.3%).

○ 그 다음으로 10, 20대, 40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을, 30대는 맞벌이 가정의 증대를, 50대는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를 많이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표 4〉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저출산으로 아동 수 감소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	기후, 환경 변화	사회 양극화 지역 격차 심화	글로벌화	지식정보사회 가속화 과학기술 첨단화	산업구조 변화 직업 인력 수요 변화	개개인의 개성, 생활방식 다양화	가족 형태의 변화	맞벌이 가정의 증대	기타	계(수)	
전체	46.3	12.3	4.9	9.5	3.7	2.7	1.3	5.2	4.7	9.3	0.1	100.0	(3,115)
연령													
15-19세	50.5	14.1	6.1	6.6	2.0	3.5	3.0	7.1	5.6	1.5	0.0	100.0	(198)
20대	42.7	16.1	4.9	8.6	4.7	2.6	1.5	3.9	4.7	9.9	0.4	100.0	(466)
30대	40.9	12.0	5.5	10.5	4.1	2.4	0.7	5.4	4.2	14.1	0.1	100.0	(956)
40대	47.3	13.0	4.0	8.8	3.4	3.6	1.1	6.4	4.4	8.0	0.0	100.0	(935)
50대	55.5	7.5	5.0	11.1	3.4	1.6	2.0	3.0	5.5	5.4	0.0	100.0	(560)
X^2(df)	130.540(40)***												
미혼/기혼													
미혼	49.1	13.2	6.1	8.7	3.9	2.6	1.7	3.7	5.9	4.9	0.2	100.0	(1,015)
기혼	45.0	11.8	4.3	10.0	3.6	2.8	1.1	5.9	4.0	11.4	0.0	100.0	(2,100)
X^2(df)	54.242(10)***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49.1	13.2	6.1	8.7	3.9	2.6	1.7	3.7	5.9	4.9	0.2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40.7	13.7	4.1	9.6	3.8	3.0	0.8	6.9	3.4	14.0	0.1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53.3	8.2	4.7	10.6	3.3	2.4	1.8	3.9	5.3	6.4	0.0	100.0	(717)
X^2(df)	128.158(20)***												

*** $p < .001$

□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의 경우,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가 40.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대 17.2%,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 12.5%, 개개인의 개성,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 8.2%,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 8.0%, 가족형태의 변화(한부모의 증가 등) 4.3% 등의 순임.

-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에 대해서는 남성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맞벌이 가정의 증대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성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5〉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저출산으로 아동 수 감소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	기후, 환경 변화	사회 양극화 지역 격차 심화	글로벌화	지식 정보 사회 가속화 과학 기술의 첨단화	직업 인력 수요 변화	개개인의 개성, 생활 방식 다양화	가족 형태의 변화	맞벌이 가정의 증대	기타	계(수)	
전체	40.7	12.5	2.4	8.0	3.0	2.9	0.8	8.2	4.3	17.2	0.1	100.0	(1,001)
성별													
남자	49.1	9.6	2.9	8.1	2.2	2.0	1.5	8.4	3.7	12.5	0.0	100.0	(407)
여자	34.8	14.5	2.0	7.9	3.5	3.5	0.3	8.1	4.7	20.4	0.2	100.0	(594)
X^2(df)	34.965(10)***												
혼인상태													
미혼	50.0	16.7	16.7	0.0	0.0	0.0	0.0	0.0	16.7	0.0	0.0	100.0	(6)
기혼-맞벌이	38.0	11.8	2.1	6.3	2.9	2.9	0.8	6.3	3.6	25.2	0.0	100.0	(476)
기혼-외벌이	43.0	13.1	2.5	9.6	3.1	2.9	0.8	10.0	4.8	10.0	0.2	100.0	(519)
X^2(df)	54.763(20)***												

** p 〈 .001

나.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우선적 고려 사항

□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10대~40대는 영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50대는 각종 차별 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을 응답함.

○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것은 10대는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20대와 40대는 각종 차별 없는 포용과 공존을, 30대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를, 50대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코로나19, 기후변화, 초저출산 등)에 대한 적응력 강화로 나타남.

〈표 6〉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심신의 안녕 행복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급변하는 사회 변화 적응력 강화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 기술 강화 등)	각종 차별 없는 포용과 공존	영유아의 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인종, 문화, 성별 등의 다양성 존중	유보 지속 가능 발전 추구	부모 자녀 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	기타	계(수)	
전체	22.1	13.6	14.9	7.9	15.2	8.8	2.5	3.0	12.0	0.1	100.0	(3,115)
연령												
15-19세	22.7	18.7	10.6	9.6	17.2	7.1	4.0	3.0	7.1	0.0	100.0	(198)
20대	17.6	13.7	15.9	13.9	16.5	6.7	2.6	2.8	10.3	0.0	100.0	(466)
30대	25.7	11.3	14.2	6.4	11.7	11.1	1.5	3.1	14.7	0.2	100.0	(956)
40대	24.7	13.2	14.0	5.8	14.9	10.5	3.0	3.1	10.9	0.0	100.0	(935)
50대	15.2	16.4	18.0	8.2	19.6	4.6	2.9	2.7	12.3	0.0	100.0	(560)
X^2 (df)	136.781(36)***											
미혼/기혼												
미혼	17.8	14.1	15.0	10.4	19.2	7.0	3.0	3.3	10.1	0.1	100.0	(1,015)
기혼	24.2	13.4	14.8	6.6	13.2	9.7	2.3	2.9	12.9	0.0	100.0	(2,100)
X^2 (df)	53.789(9)***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17.8	14.1	15.0	10.4	19.2	7.0	3.0	3.3	10.1	0.1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28.6	12.4	13.5	6.1	10.3	12.1	1.2	2.7	12.9	0.1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5.6	15.3	17.3	7.7	18.7	5.0	4.5	3.1	12.8	0.0	100.0	(717)
X^2 (df)	169.119(18)***											

*** $p < .001$

○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들의 경우, 영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이 3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 15.3%,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14.0%,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11.9%,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남성의 경우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영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음.
- 또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고려함.

〈표 7〉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순위)-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심신의 안녕 행복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급변하는 사회 변화 적응력 강화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등)	각종 차별 없는 포용과 공존	영유아의 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인종, 문화, 성별 등의 다양성 존중	유보 지속 가능 발전 추구	부모의 자녀 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	기타	계(수)	
전체	32.7	11.9	10.4	3.9	7.7	14.0	1.1	3.0	15.3	0.1	100.0	(1,001)
성별												
남자	27.3	17.4	9.6	5.2	7.6	13.3	1.2	3.2	15.2	0.0	100.0	(407)
여자	36.4	8.1	10.9	3.0	7.7	14.5	1.0	2.9	15.3	0.2	100.0	(594)
X^2(df)	28.303(9)***											
혼인상태												
미혼	16.7	0.0	33.3	0.0	33.3	16.7	0.0	0.0	0.0	0.0	100.0	(6)
기혼-맞벌이	29.0	11.6	11.1	2.9	8.4	12.8	1.3	2.3	20.6	0.0	100.0	(476)
기혼-외벌이	36.2	12.3	9.4	4.8	6.7	15.0	1.0	3.7	10.6	0.2	100.0	(519)
X^2(df)	38.484(18)**											

** p 〈 .01, *** p 〈 .001.

□ 1, 2, 3순위 응답을 합한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각종 차별 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을 가장 많이 응답함.

○ 반면, 영유아 부모의 경우 영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이 5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보육활동 및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52.2%,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 50.8% 등이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남.

다. 영유아기에 우선적으로 함양해야 할 능력과 기술

□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하는 역량과 기술에 대해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건강을 응답함. 20대는 정서/감정 조절 능력을 응답함.

○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역량과 기술로는 10대는 타인배려, 20대와 50대는 창의성, 30-40대는 정서/감정 조절능력으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 반면, 협력, 시민의식, 리더십, 봉사정신은 2%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응답률을 보임.

〈표 8〉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조절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봉사정신	계(수)	
전체	19.2	22.8	20.9	10.4	4.3	6.7	6.3	1.8	4.7	1.0	1.2	0.4	0.4	100.0	(3,115)
연령															
15-19세	15.2	22.2	12.6	17.2	4.5	7.6	6.6	2.5	5.6	3.0	1.0	0.5	1.5	100.0	(198)
20대	18.0	17.2	18.7	15.5	6.2	6.7	6.7	2.6	4.5	0.9	1.3	0.9	1.1	100.0	(466)
30대	18.9	23.0	22.4	8.2	4.7	7.0	7.7	1.5	4.3	0.9	0.9	0.3	0.1	100.0	(956)
40대	18.6	24.6	24.1	8.3	3.7	7.2	5.3	1.7	4.1	0.7	1.2	0.3	0.1	100.0	(935)
50대	23.2	24.3	17.9	11.1	3.0	5.4	5.0	1.4	6.1	0.7	1.4	0.2	0.4	100.0	(560)
X^2 (df)	112.336(48)***														
미혼/기혼															
미혼	17.2	19.5	17.1	13.7	5.7	7.3	6.4	3.0	6.3	1.2	1.4	0.4	0.8	100.0	(1,015)
기혼	20.2	24.4	22.7	8.8	3.7	6.5	6.2	1.2	3.9	0.9	1.0	0.4	0.2	100.0	(2,100)
X^2 (df)	72.049(12)***														
결혼여부*자녀여부															
미혼	17.2	19.5	17.1	13.7	5.7	7.3	6.4	3.0	6.3	1.2	1.4	0.4	0.8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부모	19.8	25.7	23.9	7.7	3.2	6.5	6.8	1.2	3.0	0.9	0.8	0.4	0.1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20.9	21.9	20.5	11.0	4.6	6.4	5.2	1.1	5.4	0.7	1.5	0.3	0.4	100.0	(717)
X^2 (df)	97.340(24)***														

*** $p < .001$.

□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의 경우도 신체건강 25.8%, 정서/감정조절능력 23.7%, 창의성 20.0%이 대체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냄.**

○ 한편, 협력, 시민의식, 리더십은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신체건강 31.0%, 창의성 23.8%, 정서/감정조절능력 17.2%의 순이며, 여성의 경우는 정서/감정조절능력이 28.3%로 가장 높았고, 긴체건강 22.2%, 창의성 18.7%의 순임.

〈표 9〉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순위)-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 조절 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계(수)	
전체	20.8	25.8	23.8	6.5	2.3	6.0	7.9	0.8	3.6	1.1	0.9	0.6	100.0	(1,001)
성별														
남자	23.8	31.0	17.2	8.1	2.0	5.9	5.4	0.5	3.4	1.2	1.5	0.0	100.0	(407)
여자	18.7	22.2	28.3	5.4	2.5	6.1	9.6	1.0	3.7	1.0	0.5	1.0	100.0	(594)
X^2(df)	38.775(11)***													

* p 〈 .05, *** p 〈 .001.

□ 1,2,3순위를 모두 합한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정서/감정 조절 능력 이 가장 많이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역량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어, 10대, 20대, 50대 는 타인배려를, 30-40대는 신체건강임.

○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우, 유사하게 정서/감정조절능력이 6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건강 44.4%, 창의성 37.1%, 기본생활습관 34.5%, 의사소통능력 30.6%, 타인배려 27.6%, 도덕성 20.5% 문제해결력 16.7% 등임.

〈표 10〉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2+3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 조절 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봉사정신	기타	계(수)
전체	30.2	39.1	53.2	34.5	17.6	30.4	30.0	13.6	25.3	8.8	9.8	4.6	2.7	0.0	(3,115)

라. 정책적 우선 지원 시기

□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대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를 응답함.한편, 20대는 만 3~4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만 5세 응답과는 근소한 차이임

○ 모든 연령대에서 만 1세 미만은 9% 미만으로 가장 적고, 40-50대에서는 만 1~2세도 9%미만으로 적어 영아시기에 대한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낮음.

〈표 11〉 향후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둘 시기-전체

단위: %(명)

구분	만 1세 미만	만 1~2세	만 3~4세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계(수)	
	4.5	12.0	38.2	45.2	100.0	(3,115)
연령						
15-19세	5.6	15.2	39.4	39.9	100.0	(198)
20대	8.4	14.4	39.5	37.8	100.0	(466)
30대	4.3	16.6	40.7	38.4	100.0	(956)
40대	2.9	8.3	37.9	50.9	100.0	(935)
50대	4.1	7.1	33.2	55.5	100.0	(560)
X^2 (df)	106.066(12)***					
미혼/기혼						
미혼	6.3	13.3	36.7	43.7	100.0	(1,015)
기혼	3.7	11.4	39.0	46.0	100.0	(2,100)
X^2 (df)	14.352(3)**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6.3	13.3	36.7	43.7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3.0	12.7	42.2	42.1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4.9	8.9	32.8	53.4	100.0	(717)
X^2 (df)	47.810(6)***					

□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의 경우,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로 만 3~4세가 42.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만 5세 41.0%, 만 1~2세 13.9%, 만 1세 미만 2.7%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연령, 학력,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만 1~2세를 선택한 비율은 20대와 30대에 많았고, 만 5세를 선택한 비율은 40대와 50대에 많이 나타남. 또한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 비해 만 5세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는 낮은 연령을 선택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표 12〉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둘 시기-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만 1세 미만	만 1~2세	만 3~4세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계(수)	
전체	2.7	13.9	42.5	41.0	100.0	(1,001)
연령						
20대	2.5	17.5	52.5	27.5	100.0	(40)

구분	만 1세 미만	만 1~2세	만 3~4세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계(수)	
30대	3.4	17.4	42.4	36.9	100.0	(536)
40대	1.9	9.2	41.3	47.6	100.0	(412)
50대	0.0	8.3	50.0	41.7	100.0	(12)
X^2(df)	24.686(12)*					
학력						
고졸 이하	1.3	10.5	44.7	43.4	100.0	(76)
전문대/4년제 재학	6.8	27.3	43.2	22.7	100.0	(44)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2.6	13.5	42.2	41.7	100.0	(881)
X^2(df)	13.617(6)*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2.4	16.6	46.7	34.3	100.0	(507)
유치원만 다님	2.5	8.9	40.9	47.8	100.0	(203)
둘 다 다님	0.0	10.0	27.5	62.5	100.0	(40)
기관 미이용	7.4	24.2	36.8	31.6	100.0	(95)
X^2(df)	39.073(9)***					
이용기관2						
국공립	3.0	13.1	40.4	43.4	100.0	(267)
그 외 기관	1.9	14.7	46.2	37.3	100.0	(483)
기관 미이용	7.4	24.2	36.8	31.6	100.0	(95)
X^2(df)	19.793(6)**					

마.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과제 중요도 및 우선순위

□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정책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9개 정책에 대해 3.7~4.1점으로 전반적으로 모두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 평균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4.1)〉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3.9)〉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3.9)이며, 나머지 과제의 중요도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13〉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_전체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0-5세)	3.7	3.3	**6.4**	28.4	36.9	24.9	100.0	(3,115)
만5세 의무무상교육	3.8	2.2	**6.5**	28.3	36.0	27.0	100.0	(3,115)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	3.8	1.9	**6.6**	29.3	38.3	23.9	100.0	(3,115)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	3.8	1.5	5.3	27.5	**40.3**	25.4	100.0	(3,115)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3.9**	1.4	4.1	24.6	**40.9**	**29.1**	100.0	(3,115)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3.9**	1.3	4.6	27.1	38.4	**28.7**	100.0	(3,115)
아동학대 예방	**4.1**	1.4	5.1	19.7	27.6	**46.1**	100.0	(3,115)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지원	3.8	1.4	5.9	30.2	**40.0**	22.6	100.0	(3,115)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3.7	1.8	6.3	34.0	37.8	20.1	100.0	(3,115)

□ 이상의 9개 정책 중 '1순위 우선 정책과제'로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과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은 0~5세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완성을, 미혼은 아동학대 예방을 가장 많이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을, 미혼은 만5세 의무·무상교육을 많이 응답함.

○ 연령대별로는 가장 우선과제로 10-20대는 아동학대 예방을, 30-50대는 0~5세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완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 14〉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우선 정책 과제(1순위)

단위: %(명)

구분	무상 유아 교육과 보육 완성 (0-5세)	만5세 의무, 무상 교육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	취약 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틈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 학대 예방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지원	초등 학교 교육 과의 연계 강화	기타	계(수)	
전체	**19.0**	**14.7**	**14.3**	9.1	13.5	9.2	13.6	3.9	2.6	0.1	100.0	(3,115)
연령												
15-19세	11.6	15.2	9.6	14.1	9.1	5.6	27.3	3.5	4.0	0.0	100.0	(198)
20대	12.0	11.4	14.2	14.8	13.3	10.3	16.3	4.3	3.2	0.2	100.0	(466)
30대	21.5	14.2	14.1	6.8	15.5	11.8	10.8	3.3	1.7	0.2	100.0	(956)
40대	20.0	16.5	14.3	7.4	14.2	8.6	13.0	3.7	2.2	0.0	100.0	(935)
50대	21.3	15.0	16.4	9.3	10.4	6.4	12.5	5.0	3.6	0.2	100.0	(560)
X^2(df)	139.163(36)***											
미혼/기혼												
미혼	13.0	14.2	12.1	13.5	13.1	8.7	18.4	4.0	2.9	0.1	100.0	(1,015)
기혼	21.9	14.9	15.4	7.0	13.6	9.5	11.3	3.9	2.4	0.1	100.0	(2,100)
X^2(df)	92.395(9)***											

구분	무상 유아 교육과 보육 완성 (0-5세)	만5세 의무, 무상 교육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	취약 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틈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 학대 예방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지원	초등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기타	계(수)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13.0	14.2	12.1	13.5	13.1	8.7	18.4	4.0	2.9	0.1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23.4	14.9	14.8	5.4	15.4	10.1	10.5	3.5	1.8	0.1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8.8	14.9	16.5	9.9	10.2	8.4	13.0	4.6	3.6	0.1	100.0	(717)
X^2(df)	129.873(18)***											

*** p 〈 .001.

바. 기타 인식

1) 향후 이용하고 싶은 교육보육기관

□ 미혼 국민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가 생길 경우 어떠한 교육·보육 기관을 보내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기관(27.7%), 시설환경이 안전하고 좋은 기관(18.4%), 교사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11.1%), 프로그램이 우수한 기관(10.3%)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응답의 차이는 없음

○ 미혼의 경우, 교사전문성과 프로그램 보다는 집과의 거리, 시설환경을 2-3배로 높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5〉 향후 출산 후 보내고 싶은 유아교육·보육 기관(1순위)

단위: %(명)

구분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	프로 그램이 우수함	교사의 전문성	비용이 저렴함	운영시간이 충분함 (장시간 운영)	시설 환경이 안전하고 좋음	돌봄 서비스 이용 (아침 돌봄, 긴급 돌봄, 저녁 돌봄 등)	차량 운행으로 등하원이 편리함	급 간식의 질이 좋음	초등 학교 교육 준비, 적응을 잘 할 수 있음	기타	계(수)	
전체	27.7	10.3	11.1	8.0	8.0	18.4	8.0	2.2	1.2	4.7	0.4	100.0	(1,015)
연령													
15-19세	30.1	7.8	11.4	6.2	4.7	21.8	7.3	2.6	3.1	5.2	0.0	100.0	(193)
20대	25.5	11.4	12.2	10.1	9.1	15.8	7.5	2.1	0.5	5.2	0.5	100.0	(385)

구분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	프로그램이 우수함	교사의 전문성	비용이 저렴함	운영시간이 충분함 (장시간 운영)	시설 환경이 안전하고 좋음	돌봄 서비스 이용 (아침 돌봄, 긴급 돌봄, 저녁 돌봄 등)	차량 운행으로 등하원이 편리함	급 간식의 질이 좋음	초등학교 교육 준비, 적응을 잘 할 수 있음	기타	계(수)	
30대	25.1	15.6	9.0	7.5	9.0	19.1	7.0	3.5	1.5	2.0	0.5	100.0	(199)
40대	33.1	6.9	11.9	6.3	8.8	18.1	8.1	1.3	0.0	5.6	0.0	100.0	(160)
50대	28.2	5.1	9.0	6.4	6.4	21.8	14.1	0.0	1.3	6.4	1.3	100.0	(78)
X^2 (df)	51.700(40)												

2) 영유아교사에 적합한 학력 수준

□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사가 되기 위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8.1%), 그 다음으로 2,3년제 전문대 졸업(32.6%)로 나타남.

○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교육에 대한 응답은 미혼(14.3%)인 경우가 기혼(9.7%)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 영유아 부모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학력의 영유아교사를 응답함.

〈표 16〉 영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적합한 최소 자격 기준-전체

단위: %(명)

구분	고졸 후 일정기간 교육	2,3년제 전문대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 졸(석사)	기타	계(수)	
전체	11.2	32.6	48.1	6.5	1.6	100.0	(3,115)
연령							
15-19세	19.2	25.8	44.4	8.1	2.5	100.0	(198)
20대	12.4	26.2	54.3	6.4	0.6	100.0	(466)
30대	7.7	29.3	53.7	7.0	2.3	100.0	(956)
40대	10.2	38.3	43.6	6.2	1.7	100.0	(935)
50대	15.0	36.3	42.1	5.7	0.9	100.0	(560)
X^2 (df)	82.297(16)***						
미혼/기혼							
미혼	14.3	28.9	48.4	7.2	1.3	100.0	(1,015)
기혼	9.7	34.3	48.0	6.2	1.8	100.0	(2,100)
X^2 (df)	21.292(4)***						

구분	고졸 후 일정기간 교육	2,3년제 전문대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 졸(석사)	기타	계(수)	
결혼여부/자녀여부							
미혼	14.3	28.9	48.4	7.2	1.3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7.7	34.3	50.0	6.0	2.1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3.7	34.4	44.1	6.6	1.3	100.0	(717)
X^2 (df)	42.160(8)***						

*** p 〈 .001.

3) 아동수당 이용과 양육 방식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될 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관련하여, 양육방식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바우처로 보육기관을 이용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음.

○ 한편 미혼인 경우와 초등2학년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아 가정에서의 양육을 선택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17〉 0-1세 영아수당을 고려한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전체

단위: %(명)

구분	영아수당을 지급받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현재와 같이 바우처로 보육기관(어린이집)을 이용한다	계(수)	
전체	49.8	50.2	100.0	(3,115)
연령				
15-19세	50.0	50.0	100.0	(198)
20대	56.0	44.0	100.0	(466)
30대	52.2	47.8	100.0	(956)
40대	46.8	53.2	100.0	(935)
50대	45.2	54.8	100.0	(560)
X^2 (df)	17.433(4)**			
미혼/기혼				
미혼	48.1	51.9	100.0	(1,015)
기혼	50.6	49.4	100.0	(2,100)
X^2 (df)	1.701(1)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48.1	51.9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53.0	47.0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45.9	54.1	100.0	(717)
X^2 (df)	11.263(2)**			

*** p 〈 .001

□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 전체의 52.4%는 영아수당을 지급받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47.54%는 현재와 같이 바우처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성별, 맞벌이 여부,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여성, 맞벌이 부모,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것이라는 응답을 더 많이 함. 한편,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는 다른 기관 이용 부모와는 달리 가정에서 양육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18〉 0-1세 영아수당을 고려한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영아수당을 지급받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현재와 같이 바우처로 보육기관(어린이집)을 이용한다	계(수)	
전체	52.5	47.5	100.0	(1,001)
성별				
남자	45.0	55.0	100.0	(407)
여자	57.7	42.3	100.0	(594)
X^2 (df)	15.822(1)***			
혼인상태				
미혼	50.0	50.0	100.0	(6)
기혼-맞벌이	45.2	54.8	100.0	(476)
기혼-외벌이	59.3	40.7	100.0	(519)
X^2 (df)	20.028(2)***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48.9	51.1	100.0	(507)
유치원만 다님	48.8	51.2	100.0	(203)
둘 다 다님	42.5	57.5	100.0	(40)
기관 미이용	86.3	13.7	100.0	(95)
X^2 (df)	48.915(3)***			
이용기관2				
국공립	52.8	47.2	100.0	(267)
그 외 기관	46.2	53.8	100.0	(483)
기관 미이용	86.3	13.7	100.0	(95)
X^2 (df)	51.337(2)***			

*** p 〈 .001

4)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 차이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는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두 기관의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96.9%, 30대의 79.9%, 30대의 84.4%, 50대는 58.3%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의 92.5%가 두 기관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만 이용해본 부모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표 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차이 유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2.1	17.9	100.0	(918)
연령				
15-19세	100.0	0.0	100.0	(1)
20대	96.9	3.1	100.0	(32)
30대	79.9	20.1	100.0	(483)
40대	84.4	15.6	100.0	(390)
50대	58.3	41.7	100.0	(12)
X^2 (df)	12.522(4)*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78.5	21.5	100.0	(507)
유치원만 다님	88.7	11.3	100.0	(203)
둘 다 다님	92.5	7.5	100.0	(40)
기관 미이용	80.0	20.0	100.0	(15)
X^2 (df)	13.329(3)**			
이용기관2				
국공립	80.9	19.1	100.0	(267)
그 외 기관	82.6	17.4	100.0	(483)
기관 미이용	80.0	20.0	100.0	(15)
X^2 (df)	0.380(2)			

* p 〈 .05, ** p 〈 .01

□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이 전체의 48.8%,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23.3%, 시설환경 10.8%, 비용 8.0%, 운영시간 5.0%, 교사 대 아동 비율 3.7%의 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해본 부모는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또한 기관을 이용해보지 않은 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선택한 비율이 4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20〉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시설 환경	교사의 전문성	운영 시간	비용	교사 대 아동 비율	기타	계(수)	
전체	48.8	10.9	23.3	5.0	8.0	3.7	0.3	100.0	(754)
혼인상태									
미혼	40.0	0.0	20.0	0.0	40.0	0.0	0.0	100.0	(5)
기혼-맞벌이	50.0	12.2	19.3	7.4	7.1	3.7	0.3	100.0	(378)
기혼-외벌이	47.7	9.7	27.5	2.7	8.4	3.8	0.3	100.0	(371)
X^2 (df)	22.814(12)*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48.7	10.8	19.3	6.8	9.8	4.3	0.3	100.0	(398)
유치원만 다님	48.9	8.3	30.0	3.3	6.7	2.2	0.6	100.0	(180)
둘 다 다님	67.6	10.8	2.7	5.4	5.4	8.1	0.0	100.0	(37)
기관 미이용	33.3	16.7	41.7	8.3	0.0	0.0	0.0	100.0	(12)
X^2 (df)	29.214(18)*								

* $p < .05$

5)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부처 통합 여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는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의 80.7%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표 21〉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이원화 체제 통합 찬성 여부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계(수)	
전체	80.7	19.3	100.0	(1,001)

참석기관 정책 제안 발표

고완석 팀 장 | 굿네이버스
김승언 센터장 | 터치아이발달센터
김지수 부 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백소영 총 무 |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장화정 본부장 | 아동권리보장원
조선경 회 장 |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회
최진숙 회 장 |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20대 대통령 선거 아동 참여 정책 제안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굿네이버스

20대 대통령 선거

아동 참여 정책 제안을 위한 아동 의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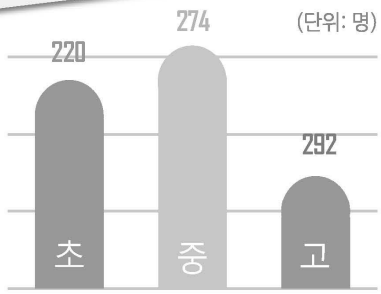
"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아동의 의견을 잘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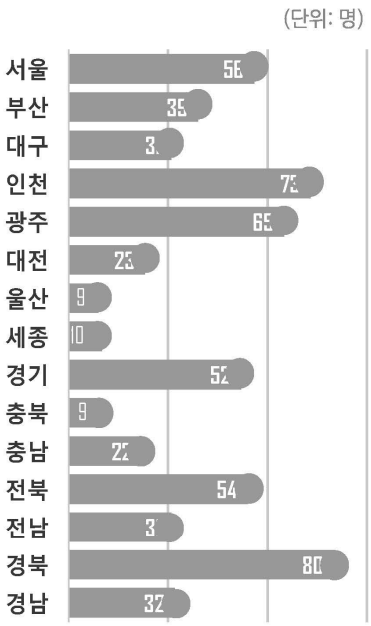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이
아동 정책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의견이 담긴 아동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동 의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기간은?**
2021년 9월 13일 ~ 10월 12일

☺ **조사참여자는?**
전국 초·중·고 학생 586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교육

38.4% 아이들이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

꿈

35.5% 아이들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

놀이 및 여가

37.9% 아이들이 놀이와 휴식,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

신체건강

23.4% 아이들이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

마음건강

21.3% 아이들이 마음이 아플 때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

취약계층

22.4% 아이들이 취약아동 및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

폭력 및 범죄

34.5% 아이들이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고 생각

디지털 환경

46.2%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고 생각

코로나19

24.6% 아이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

환경

34.6% 아이들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

주거

38.4% 아이들이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

차별

50.5% 의 아이들이 지역, 장애, 나이, 국적, 피부색,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

아이들은 어떤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나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아이들은 어떤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나요?

아동을 위해 실천해주길 바라는 정책(공약) 우선순위

1위(27.1%)
지나친 학습 경쟁은 줄이고, 아동의 진로에 맞는 교육 제도 운영

2위(14.9%)
체험형 진로교육 대폭 확대

3위(12.6%)
아동 대상 폭력 및 범죄(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범죄, 디지털 범죄 등) 예방 및 처벌 강화

4위(14.9%)
아동의 놀이 및 여가 시간 확대, 놀이와 문화생활 시설 및 지원 확대

5위(5.8%)
아동의 마음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

6위(14.9%)
아동의 건강/의료 서비스 강화

7위(4.3%)
취약 아동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8위(3.7%)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 마련

9위(3.6%)
재해/재난 속 아동 보호를 위한 있는 의료, 교육, 돌봄 등 정책 강화

10위(3.4%)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 확대

11위(3.1%)
아동과 관련한 법/정책에 아동 참여와 의견 반영 의무화

12위(2.5%)
아동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강화

13위(1.2%)
아동 친화적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 확대

기타
정말 좁고 더러운 집에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나요?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통령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u>모두를 이해하고 평등하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u>"

"시민들의 말을 잘 <u>귀 기울이는</u> 대통령"

"<u>신뢰가고 도덕적이고 소통을 자주하고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u>"

"모두의 <u>의견과 말을 들어주는 대통령</u>"

"<u>믿을 수 있고 말을 잘 들어주는</u> 아빠같은 대통령"

"자신의 <u>이익만을 챙기고 정의롭지 못한</u> 대통령"

"<u>욕심 많고 이기적인</u> 대통령"

"<u>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u>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u>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u> 대통령"

"<u>비도덕적이고 돈을 추구하는</u> 대통령"

"<u>차별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지 않는</u> 대통령"

"국민들의 <u>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u> 대통령"

대통령을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대통령님의 손주가 <u>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동 정책</u>을 펼쳐주세요"

"<u>아동들의 의견이라고 무시하기 보다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u>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아동들의 놀 거리, 시설 등을 동네에 많이 구축</u>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들에게 <u>정책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u>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들이 <u>공부시간과 여가시간이 비슷</u>했으면 좋겠어요."

"<u>공부 스트레스 안 받게</u> 해 주세요"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학교 정규 수업은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엔 각자 자신들만의 <u>특기를 살려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마음대로 하는 사회</u>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 <u>미세먼지도 없고 취업, 내 집 마련 등 아무 걱정 없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u>이 언젠간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지 말고 <u>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법</u>을 만들어주세요.

"<u>법 규정을 더욱 강화</u>시켜서 안심이 되고 <u>치안이 좋은 사회</u>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세요! <u>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막아주세요</u>."

"<u>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평한 세상</u>을 만들어주세요. 부자들에게만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꼭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세요. <u>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모두의 나이 상관없이 의견을 듣고 귀 기울여</u> 주세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인가요?

전체

초등

중등

고등

사진으로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

굿네이버스는
20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이
아동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진 속에 소중하게 담긴
아동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기간	2021. 9. 29 ~ 10. 26
참여자	전국 초·중·고 학생 98명
활동방법	아동이 직접 주제와 관련한 생각을 담은 글과 사진을 온라인 폼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진행
활동주제	내가 바라는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면 나의 1번 공약은?

아동이 바라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질과 태도

맑은 소리를 내는 피아노처럼
맑고 깨끗한

벌처럼 열심히 일하는

컴퓨터처럼 똑똑한

스피커처럼
의견을 명확히 내는

강아지처럼 활발히 교류하는

세종대왕처럼 존경할 수 있는

아동이 바라는 대통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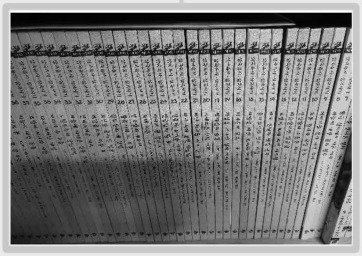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질과 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같은

하늘 만큼 넓은 시야를 가진

햇빛처럼 모두를 품어주는

온열시트처럼 마음이 따뜻한



책처럼 도움이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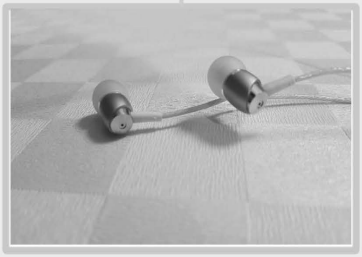
나라를 금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동이 바라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역할

산타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기

물을 먹고 자라는 식물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장하기



국민들의 소리를 집중해서 듣기

어둠 속에서는 보호해주는 가로등처럼 힘들 때 모두를 지켜주기

공기청정기 같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기

맑은 하늘을 매일 보게 해주기

아동이 바라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역할

꽃처럼 희망을 주기

나아갈 길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청소년들의 앞길을 비춰주기

무지개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처럼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들을 밝혀서 해결해주기

약속을 잘 지키기

노을 질 때 처럼 평온함을 주기

굿네이버스 아동 관련 정책 제안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021.1.) 발표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례는 연일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현황을 파악하고 개편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2. 정책요구사항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법적 근거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및 역할에 사례관리 및 ‘강제권한 ' 을 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함. 아울러,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규정을 촘촘히 마련해야 함.

(2)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및 상담원 신변안전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필요함. 아울러, 상담원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필요함.

굿네이버스 아동 관련 정책 제안

<포스트 코로나시대, 아동 마음건강 지원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동발달 위기 및 심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가정 내 소득감소와 돌봄공백, 보호자 양육스트레스 증가 등 가정의 양육 역량 역시 저하되고 있음.
- 아동의 긍정적 일상회복과 마음건강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 마음건강 측면에 대한 적극적이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정책요구사항

(1) 아동 발달단계별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 아동 발달단계별 마음건강 서비스 '보편적' 개입 및 지원
- 예방적 차원의 마음건강 예방교육 및 마음건강 서비스 강화
- 유아 및 초중고 교과과정 '마음건강 예방교육' 의무화

(2) 취약계층에 대한 마음건강서비스 확대

-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부모교육 및 양육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고위험군 가정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 취약가구 '무상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시 보호자의 양육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확대

굿네이버스 아동 관련 정책 제안

<미디어 내 아동보호 및 아동권리증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미디어 및 디지털 이용 급증
- 굿네이버스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미취학 아동 미디어 증가 18.0%에서 24.2% 증가
-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 내 아동권리 감수성 부족의 문제, 미디어 내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 등 다양한 아동권리 침해 이슈 존재함.
-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반드시 존중, 보호, 실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한 바 있음.

로 인하여 아동발달 위기 및 심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가정

2. 정책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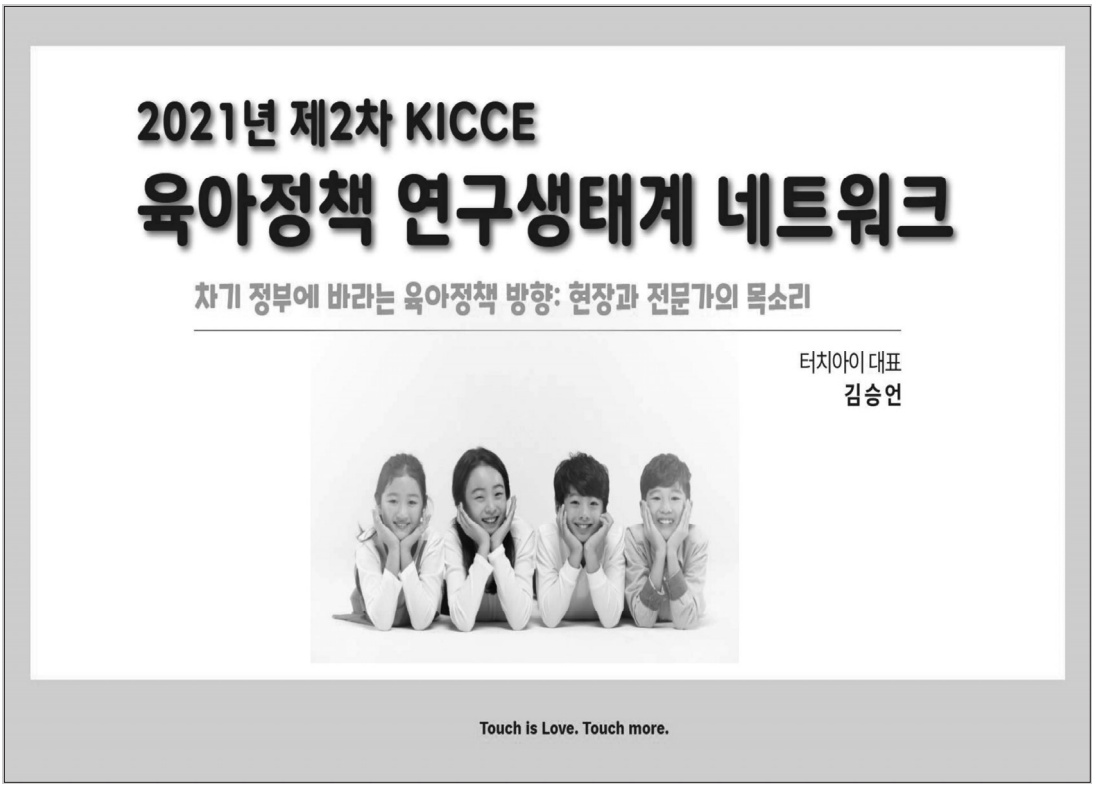
(1) 미디어 내 아동권리 최우선 보장

- 미디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아동권리' 감수성 함양
- 미디어 속 아동에 대한 혐오 금지 제도보완

(2) 미디어 내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및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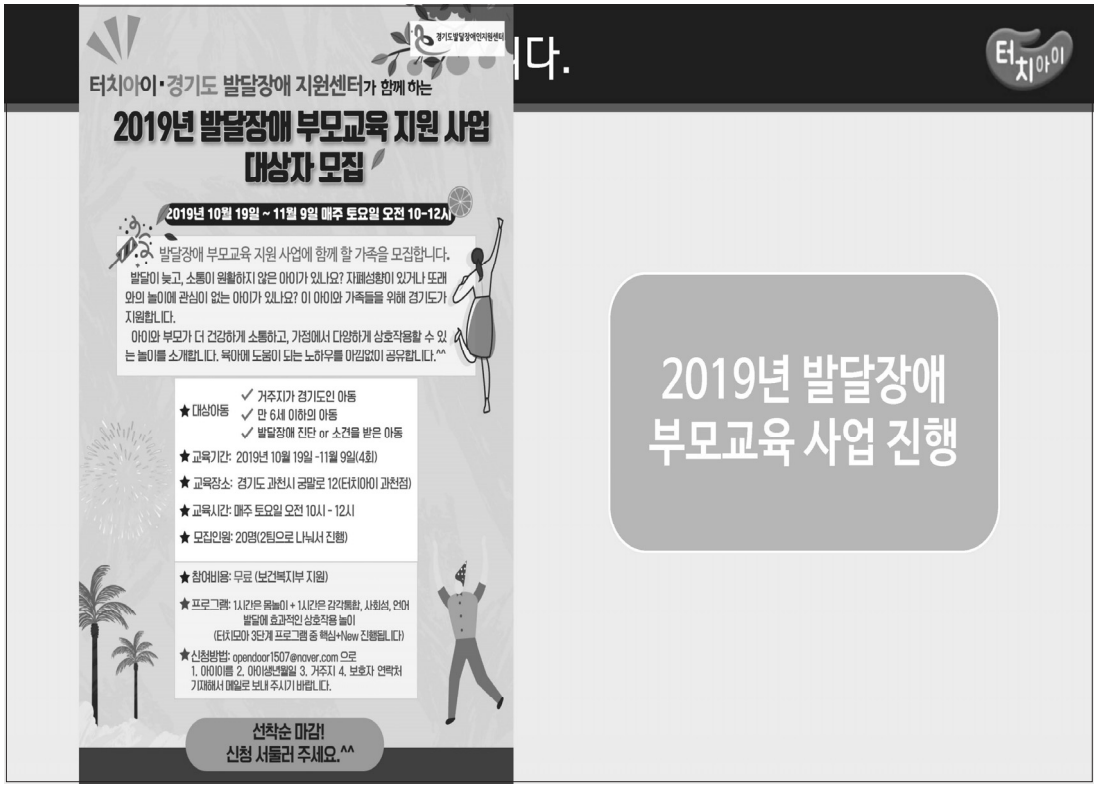
- 모든 아동이 안전한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 미디어 및 SNS 사용 관련 '아동보호정책' 마련 및 강화

(3) 미디어 통한 아동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휴식, 놀이, 여가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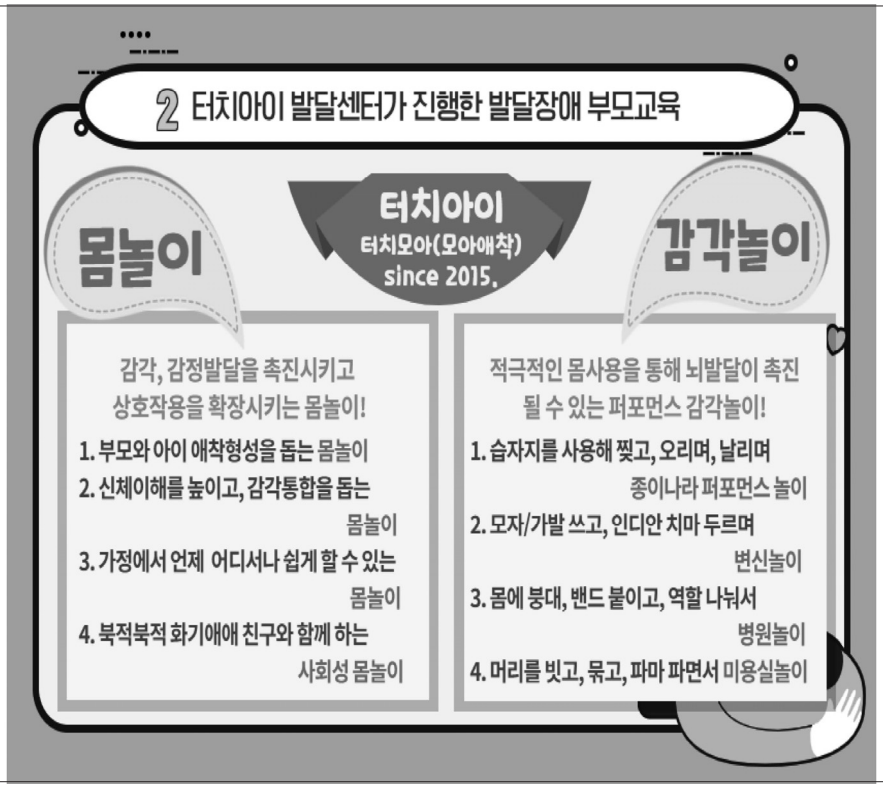

2021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방향: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
터치아이 대표
김승언
Touch is Love. Touch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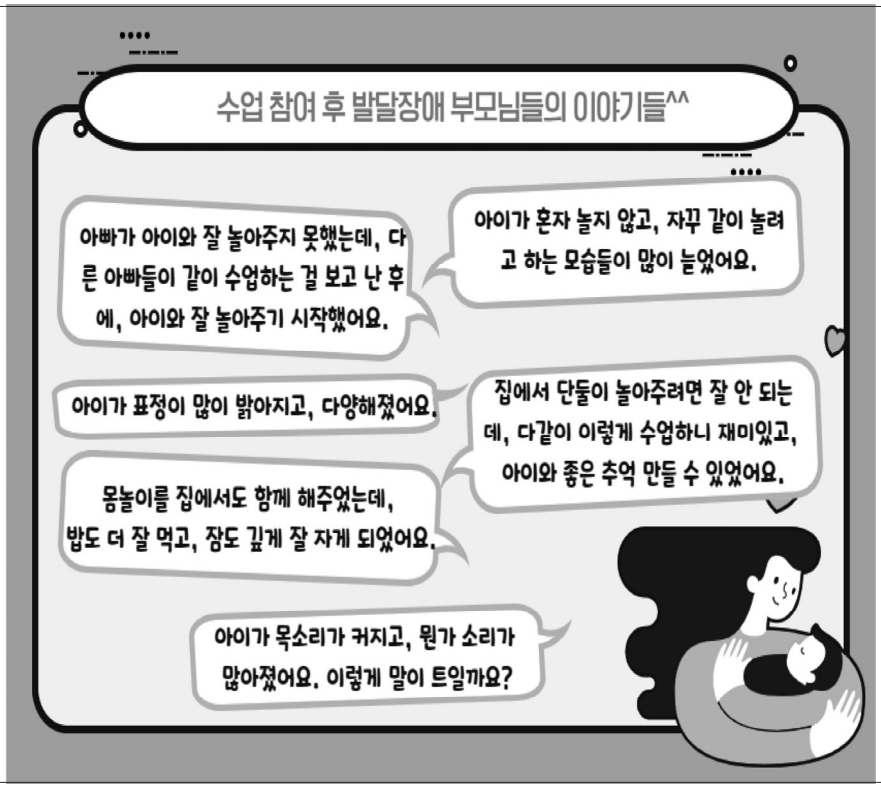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언입니다.
터치아이
터치아이TV
구독자 2.25만명
자폐, 발달장애
치료실전 가이드
[터치아이 TV]
YouTube
자폐증상? 자폐성향?
집에서 이것!
살펴 보세요.
Open Door
오픈 도어
[하루 30분
몸놀이의 힘]
내년 2월 출간
아이의 모든 것은 몸에서 시작된다
[만질수록
똑똑해지는
촉감놀이 77]
12월 출간 예정

터치아이
2015년 발달장애
부모교육 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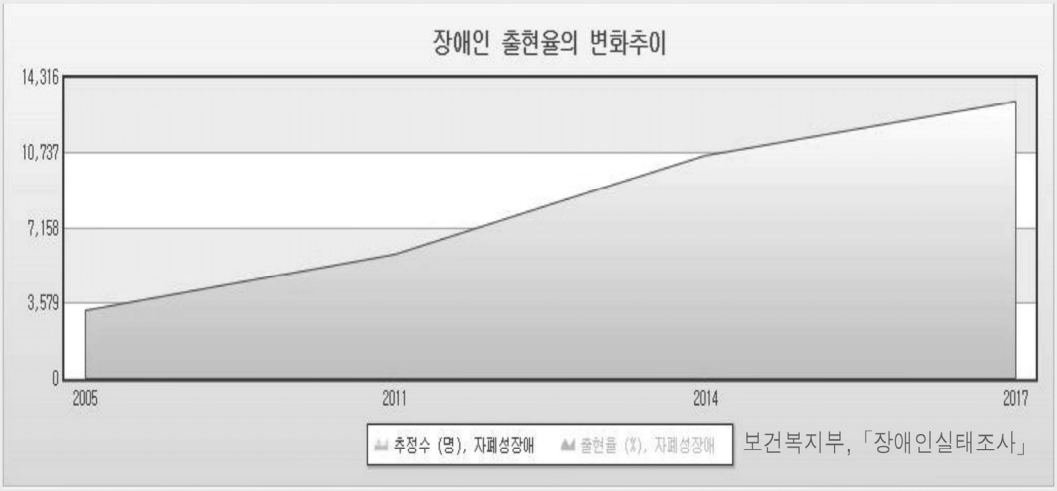

다.
터치아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터치아이·경기도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2019년 발달장애 부모교육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2019년 10월 19일 ~ 11월 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발달장애 부모교육 지원 사업에 함께 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발달이 늦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가 있나요? 자폐성향이 있거나 또래와의 놀이에 관심이 없는 아이가 있나요? 이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더 건강하게 소통하고, 가정에서 다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합니다. 육아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마음껏 공유합니다.^^
★대상아동
✓ 거주지가 경기도인 아동
✓ 만 6세 이하의 아동
✓ 발달장애 진단 or 소견을 받은 아동
★교육기간: 2019년 10월 19일 -11월 9일(4회)
★교육장소: 경기도 과천시 궁말로 12(터치아이 과천점)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모집인원: 20명(2팀으로 나눠서 진행)
★참여비용: 무료 (보건복지부 지원)
★프로그램: 1시간은 몸놀이 + 1시간은 감각통합, 사회성, 언어 발달에 효과적인 상호작용 놀이
(터치도와 3단계 프로그램 중 핵심+New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opendoor1507@nover.com 으로
1. 아이이름 2. 아이생년월일 3. 거주지 4. 보호자 연락처 기재해서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
신청 서둘러 주세요.^^
2019년 발달장애
부모교육 사업 진행

2019
발달장애 부모교육(영유아기)
터치아이 발달센터
성과 보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터치아이발달센터


2 터치아이 발달센터가 진행한 발달장애 부모교육
터치아이
터치모아(모아애착)
since 2015.
몸놀이
감각, 감정발달을 촉진시키고
상호작용을 확장시키는 몸놀이!
1. 부모와 아이 애착형성을 돕는 몸놀이
2. 신체이해를 높이고, 감각통합을 돕는 몸놀이
3.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몸놀이
4. 북적북적 화기애애 친구와 함께 하는 사회성 몸놀이
감각놀이
적극적인 몸사용을 통해 뇌발달이 촉진
될 수 있는 퍼포먼스 감각놀이!
1. 습자지를 사용해 찢고, 오리며, 날리며 종이나라 퍼포먼스 놀이
2. 모자/가발 쓰고, 인디안 치마 두르며 변신놀이
3. 몸에 붕대, 밴드 붙이고, 역할 나눠서 병원놀이
4. 머리를 빗고, 묶고, 파마 파면서 미용실놀이



자폐성 장애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원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성별(2)	2018			
	장애 발생 원인			
	추정수 (명)	선천적 원인 (%)	출생시 원인 (%)	후천적 원인 (%)
지적/자폐성	23,852	46.2	4.7	49.1

장애 발생 시기					
추정수 (명)	출생 후 5년 이내 (%)	6~10년 이내 (%)	11~15년 이내 (%)	16~20년 이내 (%)	21년 이후 (%)
23,852	59.7	7.2	5.6	4.0	23.5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아동들에게 다양한 치료적 방법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접근 가능하도록 치료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대일 치료 바우처 지원 -> 그룹치료까지 치료 지원 확대 요청

사람들 안에서 어울려 사는 삶을 강조하면서 치료실은 단둘이만 있다.

교사, 아동 관계 속에서 지시적, 일방적 흐름은 아이의 자율성을 무너트리고 수동적으로 만든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발달지연, 장애,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육아부담 및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이 제공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발달상의 지연이 있는 아동의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 (ex. 공동육아)

공동육아 및 부모와 아이가 다채롭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주변시선이 신경 쓰이지 있게)

아이와 건강한 놀이 방법을 알 수 있는 부모아이 수업 제공

THANK YOU

감사합니다.

Touch is Love. Touch more. 터치아이

가까이 다양하게
가족서비스를 선도하는 KIHF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사업

-가족친화 및 돌봄 지원사업 중심으로-

김지수 가족친화서비스부 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돌봄지원사업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5항 3호
  -(3호)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2항 4호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65번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코로나 확산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주민주도 돌봄환경 기반 구축**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공관리 체계 강화**

돌봄지원사업

아이 돌봄 | 돌봄 공동체 | 포스코 나눔재단 1%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짐

아이돌봄지원사업 목적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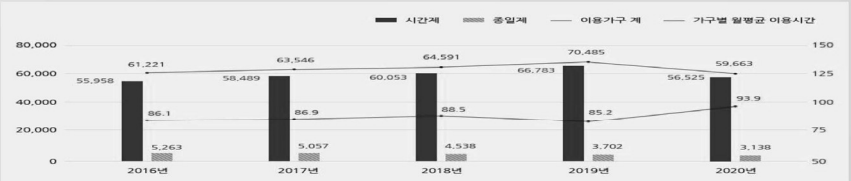
아동의 안전한 보호 복지증진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자원창출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개별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돌봄지원사업

아이 돌봄 | 돌봄 공동체 | 포스코 나눔재단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2021년 1월 기준)



아이돌보미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377	20,878	23,675	24,677	24,469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계	건가다가 통합센터	건가센터	다가센터	여성단체 여성인력	지자체직영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기타
227	148	18	6	9	10	4	3	29

돌봄지원사업

아이 돌봄 | 돌봄 공동체 | 포스코 나눔재단 1%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 운영

- 이용자 만족도 조사(6월~10월, 223개소)
- 광역거점기관 간담회(4회)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 지원

- 광역거점기관 및 모니터링단 관리(매뉴얼 등 제작배포, 실적관리)
- 수행기관 운영현황 관리(수행기관 현황, 전담인력 채용현황 등)
-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발간
-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원(233개소)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운영 현안 대응

- 중앙지원센터 운영계획
- 서비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및 아이돌보미 확대방안 연구

돌봄지원사업

아이 돌봄 | 돌봄 공동체 | 포스코 나눔재단 1%

아이돌봄서비스 교육기관 관리

- 교육기관 모니터링 운영(12개소)
- 교육기관 현황 관리 및 지원(전국 50개소)
- 교육기관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각 2회

아이돌보미 온라인교육 사업 운영

- ‘20년 개발 아이돌보미 양성(80차시), 보수(64차시) 교육 배포
- 한가원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 아이돌보미 양성 온라인교육 운영 관리 및 지원

돌봄지원사업

아이 돌봄 | 돌봄 공동체 | 포스코 나눔재단 1%

돌봄공동체 란?

◈ 사업목적

공적돌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돌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정한 돌봄망 구축

◈ 사업추진 필요성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색임지는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동체 유형

- **품앗이형**: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돌봄 활동을 하는 부모 자조 모임 및 품앗이 그룹 등
- **마을 공동체형**: 부모 및 지역 주민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 등 * 북카페, 마을카페, 마을밥상, 마을농장, 쉼터, 녹색가게 등
-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 협동 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돌봄지원사업

아이 돌봄 | 돌봄 공동체 | 포스코 나눔재단 1%

사업 추진방향(3개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발굴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육성**	**돌봄공동체 모델 성장과 전국 확산**
▶ 다양한 형태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례 발굴 ▶ 돌봄공동체 참여자 및 지역사회 내 가치 확인	▶ 중간조직 및 지역 협의체 구성을 통한 돌봄망 구축 지원 ▶ 돌봄공동체 플랫폼 활성화	▶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모델 성장과 전국 확산 ▶ 사업 확대 및 네트워킹 강화로 돌봄경제 활성화

2020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대상 : 10개 운영기관 및 33개 돌봄공동체
- 사업내용 : 컨설팅(60회), 간담회 및 교육(6회), 플랫폼 구축, 우수사례집 발간
- 사업실적 : 총 돌봄주체 12,050명, 아동 42,249명(9월 기준)

★ 틈새돌봄 : (돌봄수체)4,400냉, (아동)9,912냉, 긴급돌봄 : (돌봄수체)285냉, (아동)452냉

돌봄지원사업

아이 돌봄 | 돌봄 공동체 | 포스코 나눔재단 1%

돌봄공동체 관련 연구

· 지역 밀착형 돌봄공동체를 활용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1. 4. ~ 10.
-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운영

·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공모 (운영기관 12개소, 돌봄공동체 45개소)
· 돌봄공동체 운영기관 자문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54회 이상)
· 돌봄공동체 지원인력 및 운영기관 지원: 워크숍, 교육, 간담회, 실적관리
·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온라인플랫폼 관리, 활동사례 영상 제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돌봄지원사업

아이 돌봄 | 돌봄 공동체 | 포스코 나눔재단 1%

결혼이주여성 자립 역량 강화 및 자녀 진로지원

◈ 사업개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민관 협력사업 추진

- (사업대상) 포스코 사업장이 위치한 경북, 전남,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 (사업기간) 2021. 5. ~ 2023. 12. (3개년)
- (사업방법) 직접 및 공모사업 운영
- (사업예산) 30억원(매년 10억원)

돌봄지원사업 | 아이 돌봄 | 돌봄 공동체 | 포스코 나눔재단 1%

결혼이주여성 자립 역량 강화 및 자녀 진로지원

◈ 2021년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 자녀 진로 지원

- 진로상담(대상: 중1~고3): 결혼이주여성 자녀 진로 및 진학설계 상담
-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인재DB 기반 우수인재 선발(20명) , 우수인재 다문화 청소년 멘토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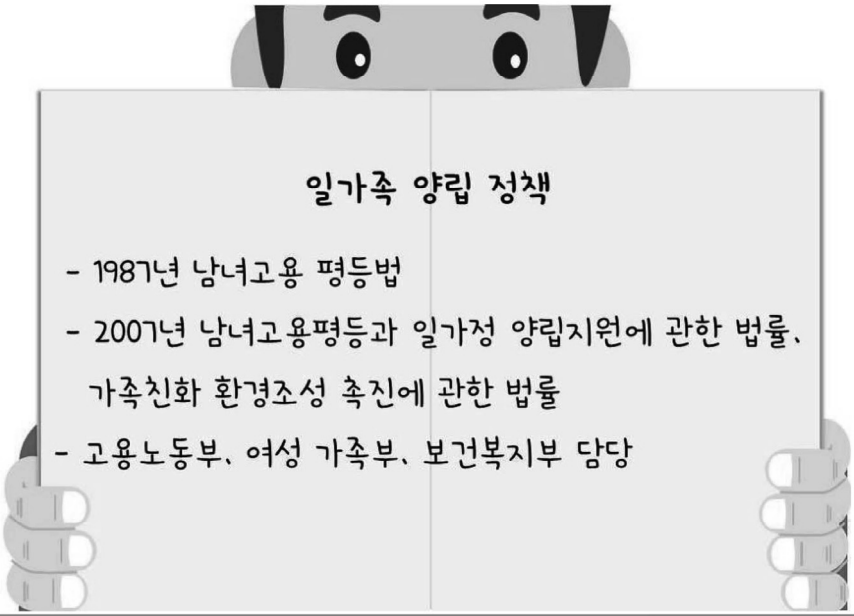
가족친화사업 지원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7항 2호, 7호
- 국정과제 65번, 국정과제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국정과제 71-4,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및 내실화
-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0~2025) 정책과제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1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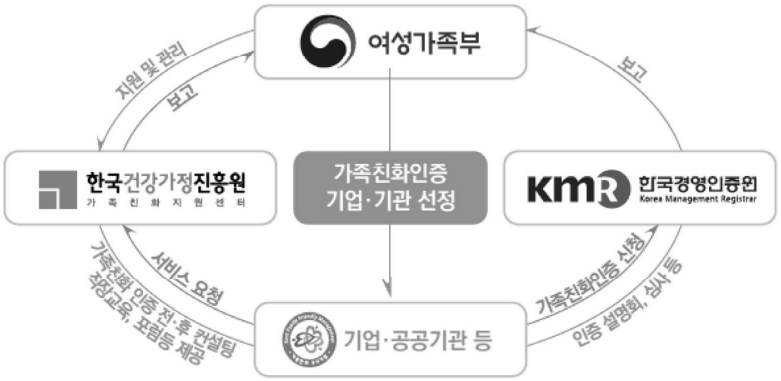
대국민 및 기업(관) 맞춤형 가족친화교육 제공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및 사회환경 조성 도모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확대를 위한 미인증 기업(관) 대상 인증준비 맞춤형 컨설팅 강화

가족친화지원사업 관련 법률



가족친화지원사업 운영체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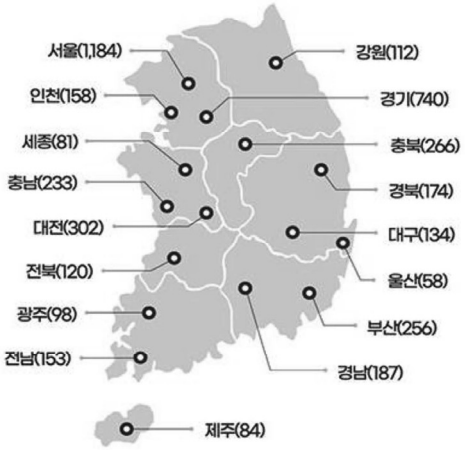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현황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총 4,340개사

대기업	456개사
중소기업	2,839개사
공공기관	1,045개사



가족친화지원사업 소개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 직장교육

- 기업과 가족친화전문강사가 1:1로 매칭되는
  ‘기업방문형 ’
- 개인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개인수강형‘
- 기업에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는
  ‘콘텐츠 제공형 ’

가족친화 컨설팅 및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 신규/연장/재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준비컨설팅’
- 가족친화제도 및 문화 고도화를 원하는 기업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 컨설팅’
- 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제도 자가 체크가 가능한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네트워크
및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 운영

- 생생한 기업과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
  ‘가족친화 네트워크‘
- 전국의 14개 지역의 가족친화 기관 협력체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 ’
- 지역의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연계 공모사업 운영‘

가족친화 홍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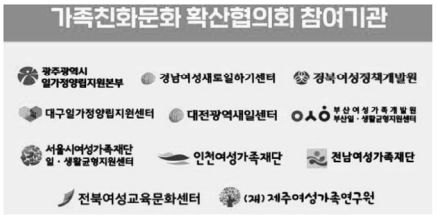
- 가족친화 온라인 소식지
  ‘다행(多幸)뉴스레터‘
- 직장 내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돌봄 수기 공모전’
- 신문지면 광고를 통한
  ’가족친화 인식개선 캠페인‘

가족친화 인증 전 컨설팅
가족친화 인증 후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포럼 운영위원회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
유관기관연계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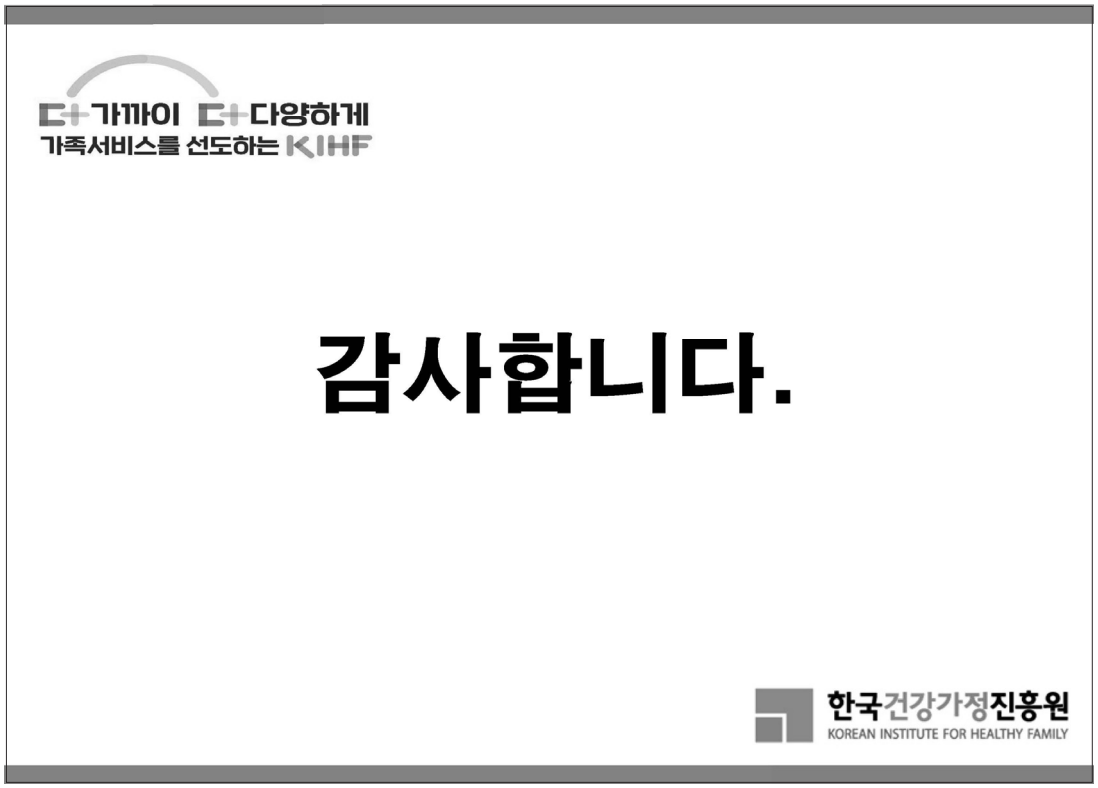


온/오프라인 홍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SNS　　가족친화 인식개선 캠페인 (신문 광고)

가족친화 홈페이지 운영

가족친화 우수기업(관) 사례집



C+가까이 C+다양하게
가족서비스를 선도하는 KIHF

감사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소속기관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경기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위	총무 (센터장)

□ 귀 기관의 국정과제 대응 사례 현황

국정과제 관련 연구 및 사업 사례

〈1〉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 확대

[국정과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가.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가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 미만(5일)/12주~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은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출처 : 2021 보육사업안내

〈2〉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 기관 설치·운영 컨설팅

[국정과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1)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예외사항*을 규정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비용부담**등에 대한**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제19조의2 제3항)

2)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 사업개요

○ 근거: 「영유아보육법」,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사업목표: '20년 130개소* '19년 추진실적 : 103개소

○ 사업내용
- 강북권 등 이용률 격차 해소를 위한 국공립 확충(비강남권 최고 30억원 지원)
- 기존시설이 많은 곳은 민간의 국공립 전환 유도,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신축
- 기존 낡은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친화적 시설개선 중점 추진

○ 우선확충지역
- 국공립어린이집 2개 미만 설치 또는 국공립 이용률이 서울시 평균 이하인 행정동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국공립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역

* 출처 : 2021 서울특별시 가족복지 분야별 정보〉복지〉가족복지〉보육

〈3〉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아빠 육아 활성화 모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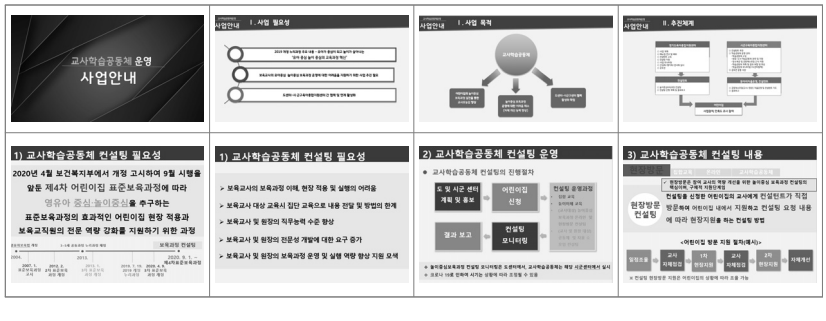
[국정과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출처 : 2021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4〉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전문교육과정 운영
- 교사학습공동체, 제4차표준보육과정 교육

[국정과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 교사학습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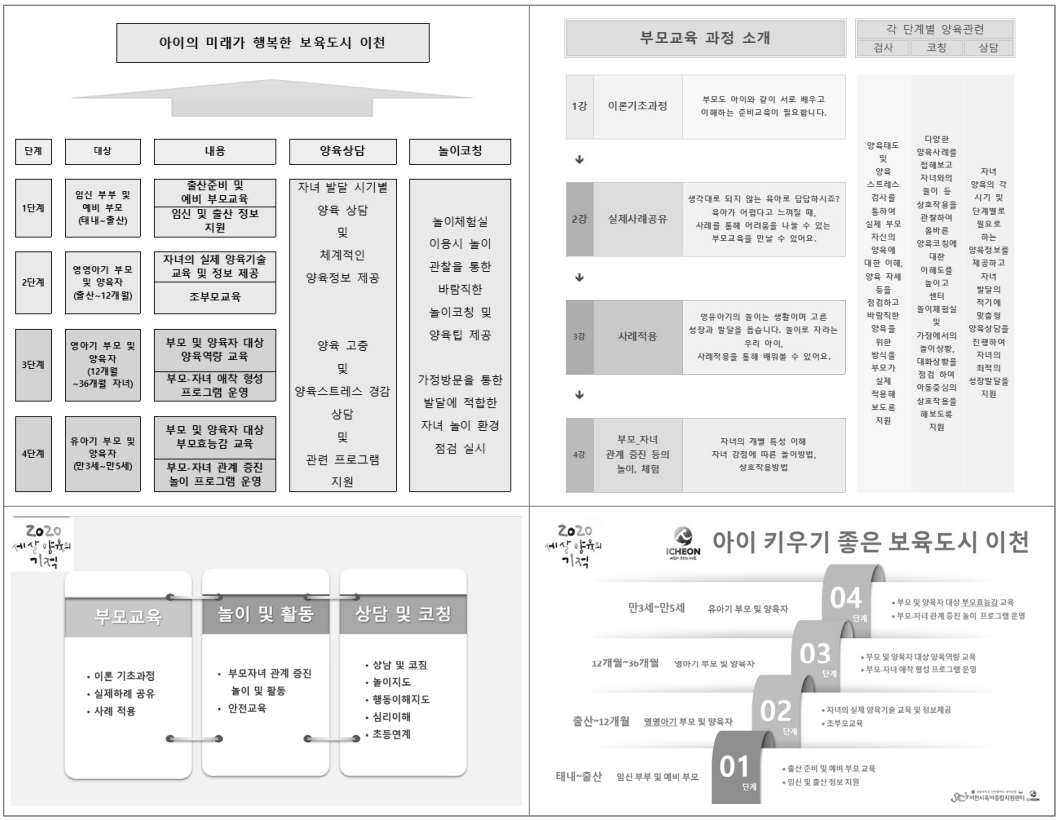
2) 제4차표준보육과정 교육

* 출처 :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1〉 보육지원 - 어린이집 비담임 교사 지원 필요
- 지역간 교사 채용의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어린이집 이용자와 어린이집 간 신뢰 체계 마련 필요
- 인구소멸지역 및 정원축소화 어린이집의 운영방식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가정어린이집의 전문화 및 양질화 관련 지원방안 마련 필요

〈2〉 양육지원 - 출생 자녀를 위한 다양한 가정양육지원 구축 체계 마련
: 산후조리 / 가정산후도움 / 양육자-자녀 관계 증진 등
ex) 행복한 양육을 위한 양육지원체계 구축



-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개별화 교육지원 필요

□ 육아분야의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협력방안 제안

구 분	제 목(주제)	비 고
연구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방향 및 제도 마련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위상 마련을 위한 토론회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장화정

영유아 정책의 성과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민간-> 시군구 경찰이 공동수행)
: 보호종료 후 안정적 자립지원강화
(자립수당, 주거, 취업, 심리지원 등 지원확대

1)입양체계 개편

- 친생부모 의뢰단계 부터 원가정 내 양육 토록 지원강화 뿐 아니라 공공 아동보호체계 가동('21.6.30)
- 입양 핵심절차(예비양부모 적합성, 결연, 입양전제위탁) : 공적 결정기구 심의
- 입양대상 아동 보호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 추진
- 아동-양부모간 안정적 적응지원 : 사후 서비스강화

2) 위기아동 보호사업

- 즉각분리의 일환으로 2회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시 0-5세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분리되되록 지침 마련
- 아동보호비용으로 월 100만원 상당의 수당 마련
- 3개월 보호 후 1차례 연장 가능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 지는

긍정양육 129 원칙

1. 긍정 양육의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 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긍정양육의 기본 원리

1) 부모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2)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긍정양육의 실천방법

1) **자녀알기** –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 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2) **나 돌아보기** –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이켜 보세요
3) **관점 바꾸기** –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하는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 보세요
4) **같이 성장하기** – 부모로서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 주세요

긍정양육 129 원칙

5) **온전히 집중하기** –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6) **경청하고 공감하기** –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7)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 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 주세요

8) **실수 인정하기** – 부모도 때로는 실수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세요

9) **함께 키우기**-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린이 안전포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영유아 학대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개발.

1. 영유아 아동보호를 위한 방안

1) 제도관련 재검토

- 아동학대 정보 공유
- 부처간 협업 및 시스템 공유
-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 활용
- **가정방문 프로그램 활용**
-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교육

2) 지원대상 별 (부모 및 교사) 지원방안

2-1)부모교육의 의무화 ;

* 예비부모가 임신시 국민행복카드 교부될 때 1차 부모교육 의무화
* 아동수당과 보육료, 교육비 지원받을 때 2차 부모교육 의무화

- 부모 상담 서비스

* 현재 부모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증진센터(기초209개, 광역15개) 활용
* 부모의 감정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우울감 극복 프로그램

- 부모자조모임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생계형 맞벌이나 고소득 전문직 부모의 경우는 방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마련 필요

2-2) 교사를 위한 지원

-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

* 인성검사, 교직적성 등으로 적격 판정 받도록
* 대학교 교육과정에 교사 양성교육과정에 인성관련 과목 이수

-교사의 직무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인력 지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인력지원 2교대
* 교사대 영유아 비율 등 근로조건 개선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개선
*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2. 피해 영유아 보호방안

- 피해 영유아를 위한 전문치료 제공
- 가정위탁의 적극 활용
  (최근 즉각분리에서 5세까지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 사후모니터링 지원강화
- 원가정 복귀에 대한 대비 필요(면접교섭 관련 법안)
- 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교정
- 피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간 통합서비스

소속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직위	본부장

□ 귀 기관의 국정과제 대응 사례 현황

국정과제 관련 연구 및 사업 사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어린이 안전포럼: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 환경조성(II) **1.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1) 제도관련 재검토 - 아동학대 정보 공유 - 부처간 협업 및 시스템 공유 - 의료시스템 및 빅데이터 활용 -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 개입 - 가정방문 프로그램 활용 - 학대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교육 2) 지원대상 별 (부모 및 교사) 지원방안 2-1)부모교육의 의무화 ; * 예비부모가 임신시 국민행복카드 교부될 때 1차 부모교육 의무화 * 아동수당와 보육료, 교육비 지원받을 때 2차 부모교육 의무화 - 부모 상담 서비스 * 현재 부모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증진센터(기초209개, 광역 15개) 활용 * 부모의 감정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우울감 극복 프로그램 - 부모자조모임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생계형 맞벌이나 고소득 전문직 부모의 경우는 방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마련 필요 2-2) 교사를 위한 지원 -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 * 인성검사, 교직적성 등으로 적격 판정받도록 * 대학교 교육과정에 교사 양성교육과정에 인성관련 과목 이수 - 교사의 직무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인력 지원(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인력지원 2교대 * 교사대 영유아 비율 등 근로조건 개선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개선 -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2. 학대 피해영유아 보호방안 - 피해 영유아를 위한 전문치료 제공 - 가정위탁의 적극 활용 (최근 즉각분리에서 5세까지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 사후모니터링 지원강화 - 원가정 복귀에 대한 대비 필요 - 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교정 - 피해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간 통합 복지서비스

□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예산 포션을 더 높여야 할 것

□ 육아분야의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협력방안 제안

구 분	제 목(주제)	비 고
연구	아동보호전담 요원을 위한 영유아 양육 상담 기술	
사업		

어린이집 장애유아의 의무교육권 실현을 위한 제언

2021년 11월 22일

조선경(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

1. 장애아의 교육권

장애아에게 교육은 생존이자 인권이다.

모든 장애아 가족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1. 장애아의 교육권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 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만3~5세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1. 장애아의 교육권

특수교육법 입법효과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는 이들의 향후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장애 경감이나 완화를 위해 드는 비용과 부담은 상당히 크므로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유치원 과정을 우선적으로 의무교육화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그러나 **2008년 입법 당시부터 장애 유아를 담당할 학교, 유치원의 학급수가 부족하여 많은 수의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19조 2항(어린이집 간주조항)이 만들어짐**

2. 연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아 취원현황

연도	특수학교 영아, 유치부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계	장애전문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계
2006	1,114	538	1,652	5,406	3,212	8,618
2008	976	634	1,610	6,068	3,518	9,586
2010	794	815	1,609	6,137	3,487	9,624
2012	832	1,138	1,970	5,994	3,565	9,559
2014	837	1,675	2,512	5,860	3,835	9,695
2016	938	2,504	3,442	6,158	4,079	10,237
2017	948	2,763	3,711	6,161	4,066	10,227
2018	944	3,058	4,002	6,239	4,189	10,428
2019	929	3,422	4,351	6,301	4,568	10,869

2. 연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아 취원현황

2020년 특수교육 및 보육통계

✓ 어린이집에 1만2천명, 유치원에 6,600명의 장애아가 다님.

✓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2배임

		특수학교 영아/유치부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총 계
유치원	기관수	332	898	1,269	2,499개
	아동수	1,041	3,866	1,752	6,659명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총 계
어린이집	기관수	177	1,211	893	2,281개
	아동수	6,206	4,959	1,064	12,229명

2. 연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아 취원현황

유치원보다 장애아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이유??

✓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에 대한 만족도 높음(주변의 권유)

✓ 장애아보육의 전문성+원내 치료 서비스

✓ 종일제 보육 가능

3. 어린이집 의무교육 간주조항의 문제점

특수교육법 제 19조 2항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행 특수교육법은 보호자의 의무와 관련해서만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국가는 어린이집을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의 대상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음

4. 어린이집 차별의 현실

1) 특수교사의 배치기준 위반으로 지정취소 위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장애영유아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함

시행령 제6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배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함.

장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이
장애아 보육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 현실!!!

4. 어린이집 차별의 현실

1) 특수교사의 배치기준 위반으로 지정취소 위기

-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부족한 특수교사는 262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75명으로 **총 637명**
- 출처: 〈장애아동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박창현 외, 2021.〉

2018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공문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등 공개모집·배치에 관한 운영 지침 안내

「1. 국가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만 3세 이상 담당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특수교사 배치의 어려움과 지정 취소 우려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사 등 공개모집과 배치기준에 관한 관리·운영사항 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특수교사 등 공개모집·배치에 관한 운영 지침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2020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배치현황

구분	기관수	교사 자격 현황(명)					교사 계 (명)	부족한 특수교사 수	치료사 수
		①유아 특수 교사	②특수교사인정수료자 (2012년 80시간 이수자)	③장애영유아보육교사	④일반보육교사(장애 직무교육수료)	⑤기타교사 (초,중등특수교사 실기교사 등)			
장애 통합	1,190	102	277	725	0	490	1,594	375	87
장애 전문	176	200	297	492	0	384	1,373	262	545
계	1,366	302	574	1,217	0	874	2,967	637	632

4. 어린이집 차별의 현실

1) 특수교사의 배치기준 위반으로 지정취소 위기

-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를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그 불이익은 장애유아들에게 돌아감. 또한 어린이집은 불가피하게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정한 특수교사 배치를 위해 **장애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함.**
  현재의 분리된 체계로는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 배치는 거의 불가능함.
- 매년 배출되는 유아특수교사의 절대수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조건 등 처우의 격차가 심함.

4. 어린이집 차별의 현실

2)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는 진단 배치에서 배제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배치기관에서 장애아어린이집은 제외됨

- 장애부모들은 영유아기에 장애아로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생애주기별 치료와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상담기관 부재하여, 치료실과 복지관, 병원 등을 스스로 찾아다녀야함
-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에서 '발달심화 평가 권고' 를 받는 영유아들(검진 영유아 중 2.2%)조차 이후 조치는 가정의 선택에 맡겨지고 있음
- 어린이집 내 장애가 의심되는 위험군 영유아가 많은데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2,3년간 방치될 수 있음
- 20년 말 기준 일반 어린이집,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가 총 2,818명이며 이들은 교육적 방임의 위험에 놓임

4. 어린이집 차별의 현실

3)기관별 서비스 격차 심화됨

17' 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어린이집은 유치원 대비

시설,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 교사 처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흡

내 용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자격	특수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기타
특수교사 대 아동비율	1:4	1:6
학급당 연간 교재교구비 지원금	420만원	없음(지자체 별 상이)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 지원	있음	없음
특수교사 연봉 (21년 7월 5년차 기준)	5053만원	3492만원

이웃사랑어린이집 장애아 어머니의 글

저희 아이는 3살 때 가정 어린이집을 다녔고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하게되어 무발화였고,
발달이 느렸던 아이를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급하게 찾다가 2019년 3월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은 4세반까지만 있는 곳이었고 5세 때에 또 기관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합어린이집은 대기를 걸어둔 상태였고, 많은 고민 끝에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과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10월쯤에 병설특수반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하고 진단평가를 받은 후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작년(2019년) 11월에 대기순서가 뒤려서 포기를 하고 있었던 통합어린이집에서 입소상담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상담 후 저희 아이에게 더 맞는 환경이 통합어린이집이란 결정을 하게되어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2020년 3월에 이웃사랑 어린이집에 입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 아이의 발달 상황은 36개월에 '엄마' '아빠바'를 하였고 그 이후 할 수 있는 말이 단어
10개 이내 수준으로 발달 정체기였습니다.
소변 기저귀는 뗐지만 변기거부로 인해 대변은 기저귀에 하였고 착석과 집중력이 짧고
어린이집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의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 병설특수반 선생님과의 상담 후 언어적 자극을 많이 받기 어렵고,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도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발달재활바우처와 교육청바우처가 중복지원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방과후도 맞벌이 가정이 우선이고 등교시간도 제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아직 정서적 보육이 더 필요하고 언어적 자극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교자자격 유지'를 문의했을 때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특교자 자격 취소를 하여야만 한다고 해서 취소 신청서를 쓰고 왔습니다.

- 제가 느린 아이를 키우면서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어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 혜택을 받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기 어렵고 아는 지인이나 느린 아이들의 카페활동을 통해 정보를 얻어 알게 되었습니다.

- 바우처 신청시에도 직원들 간의 소통 부재와 업무 누락으로 인해 부평구청에 직접 문의한 후 지원신청을 할 수 있었고 특수교육대상자 상담 후에도 병설 특수반 정원이 많이 부족함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청에 여러번 건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선 어렵다"라는 형식적인 내용 뿐이었습니다.

- 저희 아이가 다니는 병원치료실이나 센터만 가도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발달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도 비싼 편이어서 아이에게 많은 치료를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리고 어린이집원생과 유치원특교자라는 자격으로 나누어 많은 치료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혜택과 지원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아이들마다 발달이 다르고 성향도 달라 각자의 맞는 환경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자리도 많이 부족하며 정보가 부족해 모든 것을 부모가 알아보며 발로 찾아 뛰어야 하고, 그 마저도 찾지 못하면 기관 입소를 포기하거나 일반기관에 마음 졸이며 눈치 보면서 매일을 보내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 부모된 입장으로서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냉담한 시선들을 받지않고 전문적인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많은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받으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장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

❖ *2018. 6. ~ 2021. 8. 현재.*

❖ *장애아보육제공기관협의회, 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아부모회 등 14개 참여단체 참여함

✓ 유아특수교사 배치현황관련 설문조사

✓ 장애영유아 차별사례 수기 공모, 국민서명운동

✓ 장애유아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 청와대 국민청원 전달식 (12만명 참가)

청와대 앞 기자회견/서명지 전달

인권올림 차별내림 문화제 / 국회 간담회

- ✓ 2019년 2월 20일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발의 ('장애아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
- ✓ 대표발의 :김해영 의원실)
- ✓ ->유아특수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힘
- ✓ 2020년 이후. 특수교육법 개정관련 활동
-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자료 준비 중

3년 간의 외침>>>>>사회부처장관회의(2021.5.12)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1 - 8 (1호)
안건유형	심의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

-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

2021.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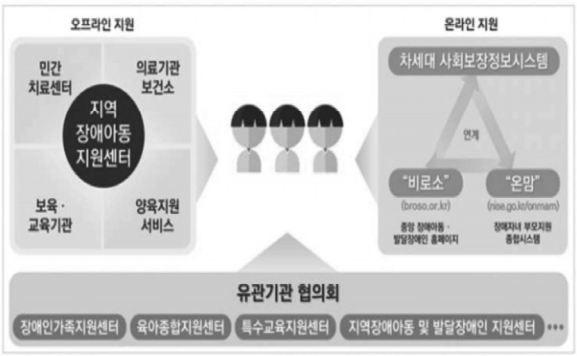
관계부처 합동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이수용 기자 | 입력 2021.05.12 16:28 | 수정 2021.07.22 12:47 | 댓글 0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1마을 1마을기업 육성' 추진



6. 장애아동 종합지원대책

정책 추진과제(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행안부)

1.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2. (기관)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
3. (가정)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4. 문화 체육 놀이 등 즐길 권리 신장
5.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7. 앞으로의 정책 과제

1. **보육 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일원화**
2.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활성화
3. 장애아동 보육정책 개선으로 장애아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아동의 재활과 발달 지원

- **보육료 증액 등 장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마련**
- **장애아어린이집에 특수교사배치**
- **장애아보육 교육 관련법 개정**

감사합니다

장애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장애아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꿈꾸어봅니다.

소속기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직위	회장

□ 귀 기관의 국정과제 대응 사례 현황

국정과제 관련 연구 및 사업 사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대한민국 국·공립유치원 원장, 원감, 전문직으로 구성된 단체로 2004년 결성되어 현재 1,700여명의 회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의 목적은 유아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회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한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에서 국정과제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을 수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5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 전공자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의 수장은 전공자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저출산을 해결해나갈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유아교육 본질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아교육과를 설치한 지역은 3곳에 불과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 설치는 교육감의 권한이며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아교육과 설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 전공자를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국·공립유치원을 7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향후 확대는 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 확대라 함은 단설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70% 이상의 유아가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방과후 과정은 전담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은 유아와 놀이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교육에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가장 큰 이유는 방과후 과정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업무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이 차지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과후 과정을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치원은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의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과후 과정은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보육과 돌봄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보육의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유아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과 지역에 따른 특수성이 있음 또한 인정하실 것입니다. 공사립유치원의 차별화, 지역에 따른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여 사립유치원에게는 자율성을 허용하고, 인구밀집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급당 인원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올해 영・유아교육기관은 모두가 유아모집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육아분야의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협력방안 제안

구 분	제 목(주제)	비 고
연구	학급당 인원수와 유아중심 놀이중심 운영에 미치는 영향	
사업	메타버스 세상과 함께 할 유아교육의 비전(학술 토론 및 원격연수)	